

## 당사업은 사람과의 사업

주체 59(1970)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따라세울데 대한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을 잘 아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라고 밝혀주시였다.

당일군들은 모든 사업에 앞서 사람을 잘 알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람을 안다는것은 그의 진짜속마음을 안다는것이다. 속마음이란 말그대로 가슴속에 묻혀있는것이기때문에 그것을 알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가야 한다....

당사업의 원리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가슴에 깊이 새기였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실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수 있게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갈 때 우리 당을 대중속에 뿌리박은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한 조직력과 전투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